

## 중국어 문장 범주 완곡 표현 연구

吳 眩 娃\*

<目次>

- |                    |                                |
|--------------------|--------------------------------|
| I. 서론              | 4. 가정문의 사용                     |
| II. 문장 범주 완곡 표현 방식 | 5. 동사 중첩 및 ‘소량(少量)’<br>의미표현 첨가 |
| 1. 의문문의 운용         | 6. 어기조사의 활용                    |
| 2. 부사의 첨가          |                                |
| 3. 조동사의 활용         | III. 결론                        |

### I. 서론

일상적인 언어교제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이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즉 언급하기 곤란한 내용을 표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때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이고 함축적인 말로 대체하여 완곡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언어 표현을 ‘완곡어’ 혹은 ‘완곡 표현’이라 한다.

완곡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완곡한 뜻을 가진 어휘를 통한 표현 방식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완곡어’가 바로 이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금기어 중의 하나인 ‘죽음’을 표현할 때 ‘死’라는 어휘 대신 ‘去世’·‘老了’·‘逝世’·‘長眠’·‘遇難’ 등의 완곡어를 사용하여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어휘 차원의 완곡어는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이미 규범화되어 하나의 어휘 체계를 이루고 있다.<sup>1)</sup> 현재까지 진행된 완곡어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바로 이 어휘 범주의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문장 차원의 완곡 표현 방식이다. 이것은 문장의 표현이나 대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완곡성을 갖는 것으로, 구문 선택과 문법 수단의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완곡 표현을 말한다. 중국어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는 반면 문장을 구성하는 형식이 다양한데, 특히 허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허사와 다양한 문장 구성 방식을 통해 어기를 완곡하게 만들 수 있다.<sup>2)</sup> 이러한 문장 표현 형식의 완곡어는 구체적인 담화맥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담화맥락의 고려 없이 표면적인 의미만으로 이해되고 정리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어휘 범주의 완곡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어휘나 문장을 통해 완곡한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어휘 범주의 완곡 표현과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sup>

앞서 언급했듯이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은 그 연구의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성과 역시 부족한 편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며, 실생활에서도 적절하게 응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그 가치나 중요성이 약화되어 학습자들이 소홀히 하기 쉽다.

- 1) 《漢語委婉語詞典》(張拱貴, 1996), 《謙辭敬辭婉辭詞典》(洪成玉, 2002), 《實用委婉語詞典》(王雅軍, 2005) 등에서 사전 형식으로 어휘의 완곡 의미를 전면적·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2) 張宇平·薑豔萍·於年湖, 《委婉語》(第1版; 北京: 新華出版社, 1998.2), 133-134쪽 참조.
- 3) 완곡 표현에 대하여 논하는 다음의 두 편의 논문에서 완곡 표현의 범주를 두 가지 유형, 즉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도 이 연구들을 참고하여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로 분류하였다. 김미형,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2000), 39쪽 참조/김현철·김민영, <현대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58(2009), 236쪽 참조.

필자는 박사논문을 집필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해왔다. 이에 보고는 ‘완곡 표현’의 관점에서 문장 범주의 표현 방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sup>4)</sup>

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에서 문장 범주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된 앞선 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철·김민영(2009.10)의 <현대 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sup>5)</sup>와 김정은(2010.6)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대조 분석-부탁화행을 중심으로><sup>6)</sup>에 이 범주에 대한 논의가 있다. 우선 김현철·김민영(2009)의 논문에서는 현대중국어 완곡 표현을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완곡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고찰하였다. 어휘 범주 완곡 표현은 음성 및 문자 변용 방식, 어휘 대체 방식, 수사 기법 사용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문장 범주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으로는 어기의 전환, 부정 표현, 인칭대사의 전환, 동사의 중첩, 기타 언어성분 첨가 등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정은(2010)의 논문은 한국어와 중국어 부탁화행에 나타나는 공손표현의 비교조사를 통해 공손표현의 유형과 양상, 그리고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중국어는 부가의문문, 동사중첩, 울타리어 등의 형태표지를 추가하여 공손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에는 어떠한 구성 방식들이 있으며,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연구와 논의점이 유사한 것을 고려하여 보고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부각시켜 논의해보고자

4) 줄고, <老舍作品禮貌語言研究>,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09.6. 57-72쪽 참조. 위 논문에서는 완곡 표현을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의 상위 개념인 공손표현에 대한 문장 범주의 표현 방식(禮貌語言的特定表達方式)을 다루었다. 그러나 집필 과정에서 문장 범주의 표현 방식이 완곡 표현법(婉言法)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관점을 축소하여 완곡 표현에 초점을 맞춰 문장 범주 표현 방식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5) 김현철·김민영, 앞의 논문, 236-264쪽.

6) 김정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62(2010), 194-211쪽.

한다. 앞선 두 논문에서는 가정형식을 사용하거나 명령 혹은 청유문에 조동사를 첨가하여 완곡한 표현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없다. 또한 어기조사의 사용을 통한 완곡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미진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중국어 완곡 표현, 특히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중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적절히 운용되어 원만한 대화와 교류를 이루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논문에 인용된 예문은 老舍의 희곡작품 《茶館》·《龍須溝》 등과 曹禺의 대표적인 희곡작품 《雷雨》에서 취하였다.

## II. 문장 범주 완곡 표현 방식

### 1. 의문문의 운용

일상적인 언어 교체 활동에서 서로 다른 어기를 지닌 문장형식을 이용하여 대화나 교류를 진행하게 된다. 이 중 완곡 표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문장형식이 바로 의문문과 청원문이다.<sup>7)</sup> 일반적으로 청원문은 명령·요구·권유·부탁·금지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청원문 대신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부탁이나 요구를 하기도 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1) a. 來點吃的!

먹을 것 좀 줘!

b. 我要點吃的。

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7) 陳松岑, 《禮貌語言》(北京: 商務印書館, 2005.3), 76쪽 참조.

- c. 給我來點吃的好嗎?  
 먹을 것 좀 줄래?

위 예문(a), (b), (c)는 모두 ‘먹을 것을 달라’는 요구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동일한 교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각각 다른 문형을 취하고 있다. 청원문 형식인 예문(a)를 보면, 명령의 어기가 강해져 표현이 다소 직설적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치 않은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예문(b)는 평서문의 형식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암시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직설적인 예문(a)에 비해 어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예문(c)는 의문형식을 취하여, 상대방의 의견이나 허락을 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직설적인 명령이나 요구가 ‘상의(商量)’ 또는 부탁의 어기로 전환됨으로써 앞의 두 문장에 비해 한층 더 완곡한 표현이 되었다. 예문을 통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살펴보자.

- (2) a. 老趙，你跑一趟好不好?  
 조형, 수고 좀 해주시겠어요?  
 b. 老趙，你跑一趟。  
 조형, 수고 좀 해줘요.
- (3) a. 歐陽小姐，我再求求你，你再找秦大夫一趟去，可以吧?  
 아가씨, 부탁해요! 의사선생님 좀 모셔 오시겠어요?  
 b. 你再找秦大夫一趟去。  
 의사선생님 좀 모셔오세요.
- (4) a. 二叔！二叔！您也聽我說兩句行不行？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b. 您也聽我說兩句。  
 제 말 좀 들어보세요.
- (5) a. 爸，我們回頭商量，好吧?  
 아버지, 우리 다음에 상의하는 게 어때요?  
 b. 爸，我們回頭商量。

- 우리 다음에 상의해요.
- (6) a. 你給太太再拿一個杯子來, 好麼?  
 사모님께 컵 좀 갖다드릴래?  
 b. 你給太太再拿一個杯子來。  
 사모님께 컵을 좀 갖다 드려.
- (7) a. 那你不要進來吧, 好不好?  
 들어오지 않은 게 어떨까요?  
 b. 那你不要進來吧。  
 그럼 들어오지 마세요.
- (8) a. 你能給他想個主意不能?  
 그에게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b. 你給他想個主意。  
 그에게 방법 좀 알려줘요.

위 예문들을 보면,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能不能’·‘行不行’·‘好不好’·‘好吧(嗎)’·‘好麼’·‘可以吧(嗎)’ 등의 ‘X不X’ 격식과 ‘부가의문문’ 형식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문형식을 사용한 예문(a)가 청원문을 사용한 예문(b)에 비해 어감이 훨씬 부드럽고 완곡하다는 것을 위 예문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고, 결국 그 요구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옮겨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상의(商量)’의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이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대화의 상황이나 성질 또는 그 상대에 따라 적절한 문형이나 어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의문문의 사용을 통해 가장 완곡한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위 예문을 보면 호칭어가 함께 쓰인 문장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나 부탁을 하기에 앞서 ‘老趙’·‘歐陽小姐’·‘二叔’·‘爸’ 등과 같은 호칭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그 완곡함과 공손함을 보

충할 수 있다.<sup>8)</sup>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어주고 지속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칭’이다. 이것은 부탁하는 대화 상황을 한층 더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작용을 한다. 중국인들 역시 호칭어 사용을 매우 중시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 특히 민감한 편이다. 중국어에서 호칭어의 사용은 부탁하는 상황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작용하여, 공손한 부탁화행에 있어 한국어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sup>9)</sup>

## 2. 부사의 첨가

상대방의 잘못이나 약점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 또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바람에 어긋나고,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는 화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완곡한 표현을 써서 상대의 체면을 보호해야 한다.

### 1) 개연성 부사의 첨가

일반적으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부사를 첨가하여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9) 伯母，這恐怕不是解決內部矛盾的好辦法吧？

아주머니, 아마도 이것은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군요.

(10) 月明，你走，我們也許不能送你，祝你勝利，平安！

월명아 잘 가렴. 배웅을 못해 줄 것 같아. 모든 게 잘 되길 빌어.

(11) 也許，也許你弄錯了，不過你不妨說說看。

아마도 네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말해보는 것도 괜찮겠네. (어디 한 번 말해보렴)

8) 冉永平, 《語用學：現象與分析》(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1), 90쪽 참조.

9) 김정은, 앞의 논문, 205쪽 참조.

(12) 你大概是誤會了我的意思。

아마도 네가 내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위 예문을 보면, ‘大概’·‘也許’·‘恐怕’ 등의 개연성 부사로 인해 문장의 단호한 어기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아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자.

(11) a. 也許你弄錯了

아마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b. 你弄錯了

네가 잘못 안 거야.

부사의 첨가 유무에 따라 어기가 변한다는 것을 위 비교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추측이나 불확정 어감을 지닌 개연성 부사가 첨가됨으로써 발화자의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게다가 부정의 정도도 완화되어 청자는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2) 정도부사 및 어기부사의 첨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有點’·‘有些’·‘比較’·‘稍微’·‘不大<sup>11)</sup>’ 등의 정도부사와 ‘未免’·‘不妨<sup>12)</sup>’ 등의 어기부사를 첨가하여 그 비난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13) 龍師傅, 我看您有點保守!

10) 張宇平·薑豔萍·於年湖, 앞의 책, 124쪽 참조.

11) 본 논문은 《現代漢語》(周一民)의 부사 분류법에 따라 ‘不大’를 정도부사로 분류하였다. 周一民, 《現代漢語》(修訂版;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6.3), 304쪽 참조.

12) 앞의 예문(11) 참고.

용선매님, 제가 보기에 선매님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14) 你這個人真有點兒不懂人情。

너는 정이 좀 없어.

(15) 別怪我愛說直話, 您有時候未免太任性, 教劉司長下不來台!

제 말이 무례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당신도 좀 제멋대로일 때가 있어요.

(16) 我不大贊成這個辦法!

나는 이 방법에 별로 찬성하지 않아.

이와 같이 부정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사를 첨가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무례하거나 불쾌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문(13)을 보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我看(내가 보기에)’이라는 성분이 부가되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기의 차이를 살펴보자.

(13) a. 我看您有點保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좀 보수적인 것 같군요.

b. 您有點保守!

당신은 좀 보수적이에요.

‘我看’이 첨가됨으로써 단정적인 어감이 약화되고, 이로써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 등의 사전 표현은 화자가 하는 말이 전적으로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완곡한 어감을 준다.<sup>14)</sup>

또한, 예(15)는 양해를 구하는 표현인 ‘別怪我’라는 성분을 첨가하였다. 이처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기에 앞서 ‘你原諒我’·‘你恕我’ 등의 용서나 양해를 구하는 사과성 표현을 먼저 하는 것 역시 상대방에 대한

13) ‘我看’과 의미나 형식이 유사한 표현으로 ‘我覺得’·‘我認爲’ 등이 있다.

14) 김미형, 앞의 논문, 56쪽 참조.

존경과 배려를 나타내는 완곡하고 공손한 표현이다.

### 3. 조동사의 활용

여기는 조동사를 통해서도 표현된다. 따라서 조동사의 사용 여부에 따라 완곡의 정도가 달라진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14) 趙老: 不想吃, 就是喝!  
 먹기 싫다니까. 물만 마시고 싶어.  
 四嫂: 發瘡子傷氣, 得吃呀, 趙大爺!  
 원기를 회복하려면 뭘 좀 드셔야 해요.
- (14) a. 得吃呀!  
 드셔야 해요.  
 b. 吃呀!  
 드세요.
- (15) a. 你應當再到樓上去休息。  
 너는 다시 위층에 가서 쉬어야해.  
 b. 你再到樓上去休息。  
 다시 위층에 가서 쉬어.

위 예문들은 모두 조동사가 사용된 청원문이다. 도리상 또는 사실상의 필요를 나타내는 조동사 ‘得’와 ‘應當’이 사용된 후 어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조동사가 첨가된 예(14a), (15a)가 조동사가 없는 예문(14b), (15b)에 비해 어기가 한층 더 부드러운면서도 간절하다. 명령·지시 등의 주관적 성격이 약화된 반면 객관적인 당위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청자는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화자의 요구나 권유가 더 간절해짐으로써 청자는 그 요구를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간절한 요구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사역의 성질이 강한 청원문에

‘應該’·‘應當’·‘該’·‘得’ 등의 조동사를 첨가함으로써 어기를 완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조동사가 사용된 부정 표현은 어떠한가? 아래 예문을 보자.

(16) 你以為我這麼自私自利麼？你不應該這麼想我。

너는 내가 이 정도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해선 안돼.

(17) 不能這麼說，……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18) 你大力叔叔的事萬不可對別人說呀!

너는 大力삼촌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해선 안 돼.

위 예문은 ‘不應該’·‘不應當’·‘不可以’·‘不能’ 등을 사용한 조동사의 부정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부정 청원문에는 ‘別’나 ‘不要’를 사용하여 어떤 행동의 제지나 금지를 표현한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감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자.

(16) a. 你不應該這麼想我。

나를 그렇게 생각해선 안 돼.

b. 你別這麼想我。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동사를 사용한 예문(a)가 예문(b)보다 명령의 어기가 약해지면서 어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이로써 조동사의 부정 형식 역시 완곡한 부정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완곡한 부정 표현과 상반되는 표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아래 예문은 완곡함이 전혀 없는 강경한 부정 형식이다.

(19) 周 沖：爸爸，這是不公平的。

아빠, 이긴 불공평해요.

周樸園：你少多嘴，出去！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가!

(20) 你給我滾！

썩 나가!

‘少’, ‘給我+동사’ 형식을 사용한 위 예문은 명령의 어기가 매우 강하다. 어기가 직설적이고 강압적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훈계하거나 다그치는 어감을 지니고 있어 다소 모욕적인 느낌까지 들게 하는 부정 형식이다. 완곡 표현과는 거리가 먼 무례한 표현이므로 일상 대화에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4. 가정문의 사용

가정문은 가정을 나타내는 종속절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주절로 이루어진 ‘가정복문’을 말한다. ‘如果’·‘要是’·‘倘若’·‘假若’·‘若’ 등의 가정형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나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는 담화조건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우선 아래 예문을 보자.

(21) 李先生，要是方便的話，就先給我倆錢吧！

이신생님, 형편이 되면 제게 돈을 좀 주세요!

(22) 要是不麻煩的話，你給我預備點餃子好不好？

번거롭지 않다면 만두를 좀 준비해주시겠어요?

‘청자의 상황이 가능하다면’이라는 가정의 전제하에 부탁하는 것이므로 청자는 자신의 상황이 그 담화조건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는 오로지 청자에게 달렸다. 따라서 이것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배려성 표현이다. 한편, 화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자신의 요구를 제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부탁이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체면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sup>15)</sup> 이처럼 가정문의 사용은 청자의 심리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동시에 발화자 자신의 체면도 유지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 다시 말해, 화자와 청자의 체면을 모두 고려한 표현인 것이다.

한편, 위 예문(22)는 가정형식의 의문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완곡 표현법이 동시에 사용됨으로써 완곡함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동사 중첩 및 ‘소량(少量)’ 의미 표현 첨가

동사의 중첩은 일반적으로 동작의 지속시간이 짧거나 진행 횟수가 적다는 것을 표현한다. 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동사 중첩 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朱德熙(2004)는 동작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음을 강조할 때 중첩식을 사용하는데, 중첩식 동사가 시간이 짧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원문에 사용되었을 때 어기를 온화하게 만들 수 있다<sup>16)</sup>고 하였다.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의미<sup>17)</sup>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기가 부드러워지고 완곡해지는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문을 통해 어기의 차이를 살펴보자.

(23) a. 您先坐一坐。

우선 좀 앉으세요.

b. 您先坐下。

우선 앉아요.

(24) a. 您說說!

당신이 좀/한 번 말해보세요!

15) 줄고, <老舍作品禮貌語言研究>,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09.6, 61쪽 참조.

16)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2004.8), 66-67쪽 참조.

17) 李宇明, <論詞語重疊的意義>, <世界漢語教學> 第1期(1996), 14쪽 참조.

b. 您說!

당신이 말하세요!

중국어에서 동사의 중첩은 자신의 바람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형식이다. 자신의 부탁이나 명령, 혹은 바람을 표현할 때 ‘소량’의 어법 의미가 있는 동사 중첩을 사용하면 그 부탁하는 일이 시간이나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비교적 쉽게 그 부탁을 받아들여지게 된다.<sup>18)</sup>

동사 중첩 외에도 ‘짧은 시간(短時)’이나 ‘소량(少量)’을 나타내는 성분을 첨가하여 어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25) 您來一下!

당신 한 번 와보세요!

(26) 您坐一會兒。

좀/잠깐 앉으세요.

(27) 哎喲! 給我點水喝呀!

아이고, 물 좀 주게나!

(28) 大媽, 想開一點吧。

아주머니, 좀 크게 생각해보세요.

위의 예(25)와 예(26)을 보면, 짧은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동량사 ‘一下’와 ‘一會兒’이 쓰여 어기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을 요하는 행동은 수행하기가 비교적 쉽게 느껴진다. 상대방의 요구나 부탁에 대한 부담이 약화됨으로써 좀 더 쉽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한, 예(27)과 예(28)은 ‘소량’을 나타내는 ‘一點兒’이 사용됨으로써 청원의 어기가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이나 ‘소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어기를 완화시키는

18) 劉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 11), 161-162쪽 참조.

기능을 한다. 특히 부탁화행 시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부탁하고자 하는 담화내용을 축소·약화시킴으로써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sup>19)</sup> 따라서 이를 통해 친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 6. 어기조사의 활용<sup>20)</sup>

어기조사는 ‘어기’를 표현하는 주된 방법의 하나로, 어기를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어에서 어기조사는 발화를 부드럽고 완곡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처럼 어기조사의 주요 기능은 문장의 어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한 문장 끝에 경성으로 읽히는 어기조사가 쓰이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리듬도 느껴져서 어기가 완화된다.<sup>21)</sup> 따라서 언어 교체 활동에서 어기조사의 사용 역시 표현의 완곡 정도 및 상대방의 수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 특히 청원문에서 어기조사의 사용 여부는 어기의 강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보편적으로 청원문에 어기조사 ‘吧’·‘啊’가 쓰이면 요구나 명령, 부탁의 정도가 가벼워지고 약해진다. 그럼으로써 어기가 부드러워지고 완곡해진다. 반면 어기조사가 없는 문장은 강경한 어기를 지니게 된다. 아래 예문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자.

- (29) a. 出去吧, 這裏坐不住!  
 여기 앉으면 안 되니 나가주세요.  
 b. 出去, 這裏坐不住!  
 여기 앉으면 안 되니 나가요.
- (30) a. 趕緊告訴他呀!  
 빨리 그 사람한테 전해야지!

19) 김정은, 앞의 논문, 208쪽 참조.

20) 본고는 중국어의 중요한 어기조사이면서 사용빈도가 높은, 특히 청원문에 주로 사용되는 ‘吧’와 ‘啊’의 용례만을 다루었다.

21) 劉月華·潘文娛·故韡, 앞의 책, 411쪽 참조.

- b. 趕緊告訴他!  
빨리 그 사람한테 전해!
- (31) a. 瘋大爺, 快起呀, 跟我玩!  
아저씨, 일어나서 저랑 놀아요! 빨리요!
- b. 瘋大爺, 快起, 跟我玩!  
아저씨, 얼른 일어나 저랑 놀아요!
- (32) a. 別誇獎我啦!  
제 칭찬 그만 좀 하세요!
- b. 別誇獎我!  
제 칭찬 하지 마세요!

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기조사가 없는 예문(b)는 명령의 어기가 강해져서 직설적이고 무례한 표현이 되었다. 만약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발화자가 이런 강경한 어기를 사용한다면 청자는 상대방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어기조사가 쓰인 예문(a)는 명령의 어기가 약해져 권고나 부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 결과 강압적인 의도가 약화됨으로써 상대방의 요구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III. 결 론

본 논문은 중국어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 다시 말해 어휘 범주가 아닌 문장 범주에서 완곡한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휘 범주의 완곡어와 비교하면, 그 완곡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담화맥락에 근거하여 그 완곡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제약을 지닌다. 이로 말미암아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은 광범위하고 자유로우며 다변적인 특징을 가진다.

완곡 표현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명령이나 요구, 부탁을 할 때 의문문과 가정형식을 사용하는 방식,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개연성 부사·정도부사·어기부사를 첨가하여 그 의미를 약화시키는

방식, 동사의 중첩 및 ‘소량(少量)’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동작의 양을 축소시키는 방식, 어기조사나 조동사를 활용하여 어기를 완화시키는 방식 등,<sup>22)</sup> 문장 표현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완곡한 표현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완곡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나타내는 공손한 표현이다. 국제적인 교류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추세에 따라 중국 역시 완곡하고 공손한 언어 사용을 호소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중국어에서도 완곡 표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어 학습자들이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본 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參考文獻>

- 張拱貴主編, 《漢語委婉語詞典》(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6.12.  
 洪成玉, 《謙辭敬辭婉辭詞典》(北京: 商務印書館), 2002.  
 王雅軍, 《實用委婉語詞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5.4.  
 張宇平·董豔萍·於年湖, 《委婉語》(北京: 新華出版社), 1998.2.  
 陳松岑, 《禮貌語言》(北京: 商務印書館), 2005.3.  
 冉永平, 《語用學: 現象與分析》(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1.  
 周一民, 《現代漢語》(修訂版;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6.3.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2004.8.  
 劉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11.  
 박정구 역, 《중국어화용론》(서울: 신성출판사), 2005.2.  
 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옮김, 《표준중국어문법(수정판)》

22) 이 중 ‘가정문의 사용’, ‘조동사 및 어기조사의 활용’ 등은 앞선 연구에서 논의 되지 않았거나 또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12.
- 何自然·陳新仁, 《當代語用學》(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6.10.
- 張豔玲·曉義, 《當代漢語語用學》(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09.12.
- 김미형,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 2000.
- 김현철·김민영, <현대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58, 2009.
- 吳眩姪, <老舍作品禮貌語言研究>,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09.6.
- 김정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논집》62, 2010.
- 李宇明, <論詞語重疊的意義>, 《世界漢語教學》 第1期, 1996.
- 常敬宇, <委婉表達法的語用功能與對外漢語教學>,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2000.
- 洪 波, <漢語祈使句委婉程度的表達>, 《濱州教育學院學報》 6: 2, 2000.6.
- 李惠瑛, <漢語中委婉語言的表達>, 《龍岩師專學報》 22: 4, 2004.8.
- 徐晶凝, <語氣助詞“吧”的情態解釋>,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4, 2003.7.
- 《老舍文集(第11卷/第12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3.
- 曹禺, 《雷雨》(修訂本;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7.6.

#### <中文提要>

漢語委婉語不僅包括委婉詞, 還包括句子層面的委婉表現形式。所謂句子層面的表現形式, 即在句子的層面利用語法手段使語言表達更為委婉。比如, 選用某些特定句式或改變句子等方式, 這些都是屬於句子範疇的表達方式。

委婉詞具有較明白、固定的意義。句子層面的委婉表現形式則具有相對臨時的、不固定的意義, 且具有靈活多變的特征。

在言語交際中，必須要選用適當的委婉表達方式。這樣可以使對方更樂於或更容易接受，從而可以得到較好的交際效果。本文對句子層面的委婉表現形式作了探討，得出以下結論：漢語委婉語除了使用一些特定詞語外，還可以通過其他方式來表達話語的委婉性。例如：提要求對方做某事時，可以用疑問句或假設句來表達；表達批評或否定意見時，可以添加一些副詞；也可以用動詞重疊以及加上表示短時少量的詞語、使用語氣助詞、選用助動詞等間接方式來表達委婉。

作者認為，通過這方面的研究，可以加深漢語學習者對漢語委婉表達方式的認識，有助於幫助學習者理解和使用句子范疇的委婉表現形式。

주제어 : 委婉, 委婉形式, 表達方式, 句子, 語氣

